

# 어린이자료실 6월 추천도서 < 좋은 전쟁, 나쁜 평화는 없다.>



## 전쟁

조제 조르즈 레트리야  
그림책공작소  
2019  
유 808.9-ㄷ997-20

짧은 글, 흑백의 그림으로 전쟁의 실상을 말하고 있다. 스멀스멀 피어올라 세상 모든 것을 점령하고 파괴하는 바이러스처럼 묘사했다. 그 실상이 어떨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몸에 각인 되어 있을지는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긴 자도 진자도 없는 사회, 평등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쟁의 이유보다는 그 실상과 결과를 알아야 한다.



## 전쟁 그만둬!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교토대학 내 자유평화회  
성명서 / 담푸스 / 2017  
유 349-스122스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교토대학 내 자유 평화회 성명서를 그림과 함께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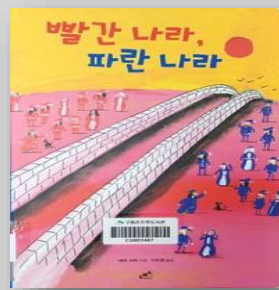
전쟁을 시작하는 이유, 전쟁의 경과,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적고 있다. 일본에서 이 성명서가 나왔다는 데서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전쟁이 뭐예요.

에두아르드 알타리바  
그린북  
2019  
아 392.1-0238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전쟁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역사 속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아빠, 도대체 군인들은 서로 죽여 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건가요?" 어른들은 이 질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 빨간 나라, 파란 나라

에릭 바튀  
담푸스  
2019  
아 349-비162비

개를 세워 가까이 갈 수 없게 하지만, 정작 두 왕자는 두 장벽 사이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긴다. 장벽을 무너뜨리고 왕래가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가 이루어지는 지혜를 아이들은 만들어 낸다.



## 무명천 할머니

정란희

스콜라

2018

유 808.9-7571스-18

4월 제주. 빨갱이 토벌대라 불리는 군인에게 기는 제주민들, 백조일손지묘, 오래 역사 속에서 제자리 잡지 못한 4.3. 사건들이 있다. 총탄이 턱을 날려버린 까닭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며,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긴 세월을 홀로 살고 계신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의 고된 삶이 제주 4.3을 대변하고 있다.



## 우리 할아버지는

### 열다섯 살 소년병입니다.

박혜선 / 스콜라 / 2019

유 808.9-7571스-30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는 잊어버렸지만 더 또렷해지는 것은 전쟁의 참혹함이다. 70년이 지난 뒤에도 그 시절을 살며 각인된 참상 속에서, 잃어버린 시절의 그리움과 전쟁의 공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전쟁은 지나간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 사자와 소년

김성진 / 스콜라 / 2018

유 808.9-7571스-25

전쟁 중 한 군인이 어느 도시의 공궐 동물원에서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화 한 것이다. 전쟁으로 축대밭이 된 도시에서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에게 독약이 처방되었다. 하지만 사자를 돌봐왔던 사육사와 어린 소년은 전쟁 속에서 사자와 함께 포탄과 배고픔의 시간을 보낸다. 사자와 소년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자랐으므로 서로의 배를 채우기보다는 공포를 함께 이겨내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지하고 있다.



## 숨바꼭질

김정선 / 사계절 / 2018

유 813.8-7912스

6.25 전쟁을 숨바꼭질 동요에 맞추어 그려냈다. 이순득은 피난을 가고 그 먼길 내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바꼭질 하듯이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 오지만 친구 박순득은 찾을 수 없다. 피와 아우성은 없지만 더 진한 이별의 아픔을 아이의 시선으로 보여준다.



### 전쟁에 끌려간 어린이 병사

미셸 치과니네,  
제시카 디 험프리스  
보물창고 / 2018  
아 308-스174브-4

1993년 콩고. 다섯살 남자아이 미셀은 납치당해 전쟁터로 끌려갔다. 군인들은 어린아이에게 총을 쏘게 하고 사람을 협박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병사'가 되게 했다. 아이는 탈출하여 가족에게 돌아 오지만 그 가족들은 콩고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난민이 되어 외국으로 떠났다. 지금 미셀은 가난과 갈등을 연구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회 운동가가 되었다.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오직 도구로만 인간을 이용하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와 국가, 그리고 세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 징검다리

마그리트 루어스  
이마주  
2018  
아 108-츠256o-10

독재와 종파간의 갈등으로 인한 내전이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되면서 일상을 뺏기고 평화를 찾아 보트를 타야 했던 사람들, 난민. 그들의 여정과 아픔, 그리고 희망을 딱딱한 돌에 붙여 넣었다. 이 책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징검다리가 되길 작가는 바란다고 적고 있다.

## 종합자료실 6월 추천도서 < 호국보훈의 달, 기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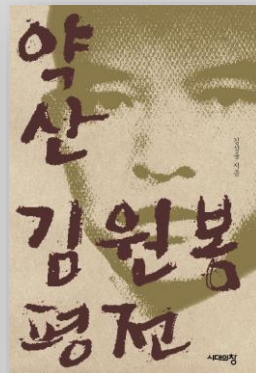


### 백범 김구 평전

김삼웅  
시대의창  
2019  
340.99- 7668스2

백범의 삶과 사상을 총제적으로 담아낸다. 지금까지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책은 김구 선생이 직접 저술한 자서전인 《백범일지》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의 사상과 독립운동에 대한 논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백범 김구 선생의 평전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백범 김구 선생의 평전을 세상에 내놓은 이유는 앞서 말한 정신의 계승과 발전에도 있지만 더 이상 잘못된 역사(친일청산)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는 데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약산 김원봉 평전

김삼웅  
시대의창  
2019  
911.066- 7756o2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약산 김원봉 선생. 그는 의열단을 창단하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항일운동을 전개한 20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우파의 김구 선생과 함께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월북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정치적 모략 속에서 남한과 북한 정권으로부터 '반역자' 취급을 받고 철저히 배척되어왔다. 저자는 30여 년간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약산 김원봉의 삶을 가장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묘사했다.

[예스24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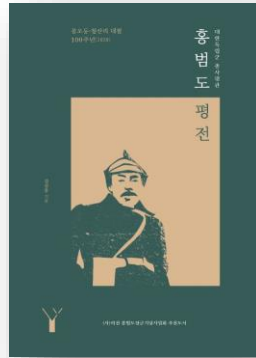
## 애기애타 : 안창호의 삶과 사상

박재순  
홍성사  
2020  
340.99-ㅎ4640

미주 도산사상연구소 고문 박재순 박사가 도산 안창호의 사상가적 면모를 드러낸 역작!

삶과 뜻, 역사가 만든 큰 인물, 큰 철학 《애기애타: 안창호의 삶과 사상》는 미주 도산사상연구소 고문이자 씨알사상연구소장 박재순 박사가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삶과 사상가적 면모를 드러낸 전기이다. 저자는 흥사단 미주위원장과 2년에 걸친 대화를 통해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흥사단 측의 도움으로 도산의 국내 및 미주 지역 활동 사진 및 수감 사진도 수록되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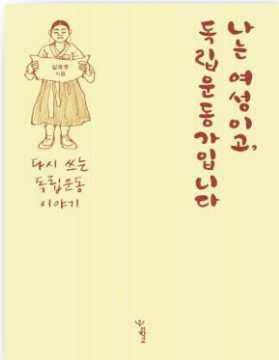


## 홍범도 평전

김상웅  
레드우드  
2019  
911.063-ㄱ756ㅎ

2020년은 독립전쟁의 전승을 거둔 봉오동·청산리 대첩 100주년이다. 모두가 기억하는 일제강점기 3대 대첩 중 2대 대첩이지만, 아쉽게도 이 신화의 주역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중국의 봉오동전투 현장과 청산리대첩의 현장인 직소, 청산리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갑오의병운동부터 게릴라전까지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 유일한 의병장이자 일본군이 '하늘을 나는 홍범도'라고 부를 정도로 공포의 명장이었던 홍 장군은 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까? 시련과 고난을 벗 삼아 살다간 독립전쟁사의 영웅을 젊은 세대에게 소개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나는 여성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심옥주 지음  
우리학교  
2019  
911.06-스978L

역사의 그림자에 갇혀 있던 여성독립운동가들. 자유와 독립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이들,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한다. 기록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잊혔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살펴 보면서 한국여성의 현주소가 어디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독자 스스로 알아 가도록 이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여성독립군열전 지워지고 잊혀진

신영란  
초록비책공방  
2019  
911.063099-스8680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만 헤아려 봐도 1만 5,454명에 이른다. 이 중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431명. 턱없이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기록되지도 못한 채 잊혔다. 그나마 기록된 이들 가운데 우리는 몇이나 알고 있을까? 남자 못지않게 목숨을 내놓고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항일 투쟁을 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기억에서 잊히고 기록에서 사라진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독립운동 맞습니다**  
 정상규  
 아틀리에북스  
 2019  
 911.063099-스392드

지난 6년간 저자가 직접 만나 인터뷰한 513명. 3.1 '혁명' 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특히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인터뷰했고 그분들의 한 맺힌 이야기, '영웅' 들 옆에서 함께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의열지사 박재혁 평전**  
 김삼웅  
 호밀밭  
 2019  
 911.063-7756브

박재혁 의사는 부산경찰서에서 체포돼 대구형무소로 옮긴 이후 긴 단식 끝에 장렬한 죽음을 맞았다. 교과서는 물론 웬만한 독립운동사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기 어렵다. 박재혁 의사는 혈육 한 점 남기지 않고 조국해방을 위해 산화했기에 남은 흔적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해방 이후 70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리에게 아직 잊힌 존재였던 박재혁 의사의 거룩한 삶과 독립에 대한 의지, 애국정신에 대해 전 독립기념관장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인물에 대한 권위자인 김삼웅 선생이 직접 평전을 집필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우리 말글을 목숨처럼 지킨 최현배**  
 이계형  
 역사공간  
 2019  
 911.06-0663츠

최현배는 열여섯 살에 주시경 선생을 만나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래 60여 년을 오로지 한글을 위해 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에 민족의 정체성이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한글맞춤법통일안 마련, 표준말 정립, 우리말 사전 편찬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최현배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일대기뿐만 아니라 그의 한글연구와 관련한 학술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였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나라 없는 나라**  
 이광재  
 다산책방  
 2015  
 813.7-0667L

제5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나라 없는 나라』는 동학 농민혁명의 발발부터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의 장군들과 흥선대원군과 이철래, 김교진 등의 젊은 관리 그리고 을개, 갑례, 더팔이 같은 주변인들이 겪는 시대적 상황과 사랑, 아픔을 "우리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가장 현재적 의미가 충만한 사건"으로 그려낸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